"단순한 팩트가 아닌 저만의 시각이 담긴 글을 전합니다"

주체적인 생산자 되고 싶어 솔직함을 무기로 쓰는 글 "다양한 경험은 가장 큰 자산"

"뉴스레터도 좋고 미디어도 좋은데, 돈이 더 좋습니다" 구현모(미디어학부 10학번) 에디터의 한 줄 소개다. 구현모 에디터는 다양한 대안 언론을 거쳐 미디어 뉴스레터 '어거스트'를 시작했다. 기존의 관습에 질문을 던지는 자유로움과 솔직함이 그의 성향을 보여준다.

과감하고 뻔뻔했던 과거 바탕으로

"많이 놀고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지평을 넓히려면 더 다양한 세계를 겪어야 하는데 대학생일 때가 가장 좋죠." 구현모 에디터에게 학교는 신입생 OT, 이중 전공, 교양 과목에서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마음먹고 방학과 학기를 한 분야에 확실히 투자하는 것도 학부생 시절이기에 가능했다. "대학생은 청춘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양한 것을 시도해 자기 것을 찾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때 겪은 실패도좋은 경험으로 남았다. 학부 시절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프로젝트로 올린 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했다.

그는 2016년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 등장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의식의 깨어남을 주장하는, 청년 대안매체 청춘씨: 발아.' 앵커 소개 멘트와 함께 영상 속 거리를 걸으며 친근한 말투로 현수막에 이런 거써 놓은 후보는 뽑지마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구현모 에디터다. 640p 화질, 3분 남짓의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회을 넘기도 했다.

그가 출연한 동영상이 SNS에 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독립 언론사 '미스핏츠'에 서 활동하던 시절, 그가 출연한 '지켜본다의 지켜보쇼' 영상은 조회수 80만회를 달성했 다. 당시 유행했던 '악플 읽는 할리우드 배우 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세월호 사건에 악 플을 다는 사람들을 응징하며 욕설을 내뱉 는 장면은 모두에게 통쾌함을 줬다.

청춘씨:발아, 미스핏츠, alternative(대안)의 앞 글자를 딴 솔루션 저널리즘 미디어스타트업 ALT까지 그가 했던 청년 미디어들은 기성 매체와 차별화된 시각으로 주목받았다. 성, 정치, 경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쉽게 다루기어려운 것들을 풀어내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충분했다. 이처럼 그가단순히 미디어소비자로 남지 않고 생산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일단 행동하고 보는 성격 덕이다. 30대가 돼서도 이 성격이 남아시작된 것이 바로 현재 운영하는 뉴스레터 '어거스트'다.

'아싸'에서 '에디터' 되기

대학원 졸업 후 취업시장에 나가서도 미디어 생산자로의 경험을 살리고 싶었다. 2019년 CJ ENM 콘텐츠 디지털마케팅운영기획팀에 입사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 외신을 번역해서 전달하기만 하는 한국 언론이 아쉬웠다. 콘텐츠분석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 전문 매체'를만들고 싶었다.

'지금을 읽고 싶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야 기' 뉴스레터 어거스트 소개 글이다. 어거스 트는 저널리즘, 드라마, 인터넷쇼핑까지 미 디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다룬 다. 무료한 일터에서 탈출하기 위해 회사 동 료 한 명과 글을 쓴 게 어거스트의 시작이었 다. 자본이 충분치 않아서 초기 비용이 적고 파급력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택했다. "유 튜브는 진지한 얘기를 하기에 적절치 않았고, 팟캐스트는 파급력이 약했어요. 메일은 직장인이라면 재미가 있든 없든 볼 수밖에 없는 매체죠." 동기와 둘이 시작했던 어거스 트는 구독자 1만 명과 에디터 8명을 갖춘 어 엿한 뉴스레터 서비스로 성장했다. 격주로 보냈던 메일도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전달

구현모 에디터에게 어거스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는 자기 일을 즐기려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거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돈은 잘하는 걸로 벌어야죠." 그는 콘텐츠제작, 창업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자신의 장단점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슈 파인더'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거스트에디터들은 미디어 평론가가 아 닌 미디어 업계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빠른 미디어 업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쓰는 글이기에 생동감이 넘친다. '뉴스'레터라는 이름에 맞게 출처가 분명한 글을 가지고 오기 위해 공들여 만들 고 있다.

"줏대 있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뉴스레 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디터의 '독창성'이 드 러나는 것이다. 언론사가 아니기에 자신의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그 가 뉴스레터에 느낀 매력이다. 글감은 트위 치, 미디어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처럼 구현모 에디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선정 한다. 관심 분야일수록 할 말이 많고, 더 자 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개할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주말 한두 시간은 관심 있는 외신을 찾아보고 공부한다. "저 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요. 제가 정한 주 제를 마음껏 까고, 칭찬하죠."

미디어학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을 배우고, 회사에서도 분석을 위해 여러 논문과 글을 접한 것도 도움 됐다. "글은 쓰면 쓸수록, 욕을 많이 먹을수록 늘더라고요." 그는 글을 계속 쓰면서 자신이 잘 쓰는 글 종류와 작성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전망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어거스트는 기존 뉴스와 차이를 둔다. 그가 쓴 글 '국내외 OTT 성적표를 공개합니다'는 국내외 OTT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를 분석했다. 단순히 디즈니플러스국내 진출소식만을 전한 기존 언론과 달리,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 구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고들며 현재 OTT 서비스의 동향을 소개했다.

이슈를 잘 찾고, 멋진 글을 써도 뉴스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메일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미있는 메일 제목을만들기 위해 밈(meme)을 활용하기도 한다. '트위치, 너 뭐 돼?'라는 제목의 글은 '응 나뭐 돼. 꽤 돼.'라는 답변을 달아 트위치의 폭풍 성장을 재치 있게 풀어냈다. "언론사가아니기 때문에 거리낄게 없어요. 일단 쓰는 거죠."

구현모 에디터의 목표는 '세상에 도움받은 만큼 내 지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고 뉴미디어 산업을 이끌겠다는 거창한 비전은 없다.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 직업적인 목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 아빠, 선배들 말은 적당히 흘려듣고 이루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그려보세요."

글**|박지연** 기자 nodelay@ 사진|**김태윤** 기자 orgnmind@ 이미지 출처|어거스트



"제가 쓰고 싶은 주제로, 원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구현모 에디터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저널리즘을 꿈꾼다.



AUGUST